

한국당 ‘패싱’… 원포인트 본회의 열리나

감사원장·대법관 인준안

민생·개혁 입법 과제 산더미

與, 靑 오찬 미루며 대책 분주

국민의당 “한국당 배제 안돼”

여야가 연내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민유숙·안철상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여야는 앞서 지난 22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연장 여부를 두고 다투다 결국 이날 예정됐던 1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회기단축 안건에 대한 의결도 예정돼 있었으나 본회의 자체가 무산되면서 애초 지난 23일 마무리될 예정이던 임시회는 ‘임시회 회기는 30일로 한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내년 1월 9일 까지로 자동연장됐다. 이에 따라 여야가 합의만 할 경우 임시회가 종료되는 1월 9일 이전까지 언제든 본회의를 열 수가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연내 본회의 개최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민주당은 26일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원내지도부 오찬까지 미루면서까지 이른 시일 내 본회의를 열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장,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는 물론 각종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연내 본회의 개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성명서에서 25일 국회에서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소집한 직후 브리핑을 자칭해 “올해 안에 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며 “올해 반드시 처리해야 할 안건이 여러 개 남았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대법원 구성을 마무리해서 사법부가 제대로 일하도록 해야 하고, 감사원장 자리는 이미 비어있어 감사원장이 선임돼야 감사원이 제대로 움직일



“국회, 일방통행은 그만”

수 있다”며 “서민과 노동자의 삶을 위해 일몰제도 제때 처리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 22일 본회의 무산의 원인이기도 했던 국회 개헌특위 시한 연장과 관련해선 ‘내년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여야 3당의 공통 대선공약이었다는 점을 상기시킨 뒤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한 당에 대해 정치공세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적반하장”이라며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과의 협상이 끝내 결렬될 경우 국민의당과 공조해 연내 본회의를 열 가능성에 대해선 “최대한 같이 해야 한다. 한국당도 설득해서 할 생각”이라며 한국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한편 한국당을 배제한 본회의 개최 가능성도 열어뒀다.

국민의당도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필

요성에는 민주당과 뜻을 같이하면서도, 한국당을 배제한 본회의 개최에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5일 광주 일보와 통화에서 “연말까지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생각해볼 수 있다”면서도 민주당을 향해 “자꾸 쉽게 가려고만 하지 말라”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여당이면 여당답게 야당을 설득하고 때론 양보하면서 정치력을 발휘해야지, 국민의당을 향해서 ‘자꾸 도와달라’고 하는 읍소식 정치 는 안 된다는 비판이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을 누구의 몫으로 할 건지를 두고 한국당과 민주당이 다투고 있는데, 이번에는 한국당이 할 차례가 맞는데도 민주당이 역치를 부리면서 자꾸 국회가 공전하고 있다”면서 “운영위원장 건도 그렇고 개헌특위 할

동기간 연장건도 그렇고 국면 전환을 위한 타계책을 민주당이 내놓아야지 자꾸만 국민의당에 도와달라는 식으로 국회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여론도 연내 본회의 개최를 압박하고 있다. 12월 임시국회 자체가 정기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에 소홀했다는 자성에서 시작됐는데, 현재까지는 성과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내년 12월 31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고, 국회 운영위원장을 한국당 정우택 전 원내대표에서 김성태 현 원내대표로 교체하는 데에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본회의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다, 국민의당 역시 ‘한국당 배제한 본회의 불가’입장이어서 연내 본회의가 개최될 것인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한국당 지방선거 인재영입 ‘속도’

홍준욱 헤럴드 회장·최중경 전 지경부 장관 등 거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인재영입에 속도를 낼 태세다.

25일 한국당에 따르면 홍 대표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 구상을 상당 부분 가다듬었고, 일부 지역의 경우 유력 후보군까지 압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는 경선을 치르기로 한 대구·경북(TK) 지역과 현역 단체장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인천(유정복 시장)과 울산(김기현 시장)을 제외하고는 전 지역에 전락공전으로 후보를 내는 쪽으로 공강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상징성이 큰 서울시장 후보로 홍준욱 헤럴드 회장과 김병준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등이 거론된다.

경기도지사 후보로는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오르내린다. 최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때 경제수석과 지식경제부 장관 등을 지낸 ‘경제통’이다.

부산시장의 경우 서병수 현 시장이 재선 의지를 밝힌 가운데 당내에서 전락공천 후보로 장제국 현 동서대 총장과 안대희 전 대법관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안 전 대법관은 경남지사 후보로도 거론된다. 안 전 대법관과 함께 박원순 의원에 경남지사 후보로도 각각 꼽힌다.

이밖에 충북지사에는 충북도 행정부지사를 지낸 박경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지사에는 홍윤식 전 행정자치부 장관과 정창수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유력후보로 각각 꼽힌다.

또 대전시장에는 박성호 전 대전시장, 세종시장에는 최민호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제주시장에는 김방훈 한국당 제주도당위원장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충남지사 후보로는 최근 대법원에서 ‘성완충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이완구 전 총리가 검토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

정가라운지

최경환 ‘5·18 정책자료집’ 발간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25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특별법’이라는 정책연구 자료집을 발간했다.

최 의원은 발간사를 통해 “국회 국방위원회에 심의 중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으로 무산되면서 해를 넘기게 돼 유감스럽다”며 “이른 시일 안에 공청회 절차를 마치고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료집에 남은 국방위 공청회, 법사위와 본회의 법안심의를 위한 조상조사위원회 활동에 유용한 자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발간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정책연구 자료집 집필자에는 송



한웅 전남대 5·18연구소장, 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재운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희송 전남대 5·18연구소 교

수, 안종철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 등이 참여했다.

자료집에는 ▲5·18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 ▲5·18진상규명특별법 진상규명의 방향 ▲5·18진상규명의 역사적 과정 ▲지만원의 ‘북한군 남파설’에 대한 반론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대안 법안 등이 담겼다.

박찬대 “외국인도 민주 유공자 예우를”

‘힌츠페터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외국인들에게도 민주 유공자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일명 ‘힌츠페터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외국인이라도 민주화운동에 공헌했다면 그에 합당한 예



우를 받고, 국립 5·18 민주묘지에도 안장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 아래서는 외국인은 민주 유공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영화 ‘택시운전사’를 통해 널리 알려진 독일의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 등은 ‘사후 한국에 안장되기를 희망한다’는 유언을 남겼으나 국립 민주묘지에 안장될 수 없었다. /김형호기자 khk@

해 넘기는 아동수당·기초연금·장애인연금법

예산 근거되는 법안처리 무산…내년 2월 처리 전망

내년에 아동수당을 신설하고 기초·장애인 연금을 올리는 정부 예산안이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작 이 예산의 근거가 되는 법안 처리는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여야 일각에서 기존 합의를 무효로 하고 재검토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제기되고 있어 국회 처리 과정에서 다시 격론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9월 발의한 아동수당법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지난달 20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22일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된 상태다.

아동수당법은 5세 이하의 아동에게 매월 일정액을 주는 아동수당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기초연금·장애인연금법은 기존 연금액을 2018년과 2021년 각각 25만원과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수당은 지급대상은 대상자 전원에서 1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로 조정됐다.

복지위 소속 한 의원은 “12월 임시국회에서는 지난달 논의하다 중단된 법안부터 심사했고, 이에 따라 아직 아동수당법 등은 심사하지 못했다”며 “다만 시행 시기가 9월로 미뤄져서 여유는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일단 2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처리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관련 세출법안인 만큼 2월에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민주당과 국민의

당의 새해 예산안 공조 처리에 여전히 비판을 가하면서 강하게 반발하는 만큼 관련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예산안 처리 때 뒤통수를 맞은 것인데 이것을 그대로 해주는 것이 맞는지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도 여야 합의 과정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을 관련 법안 처리 과정에서 원상 복구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해당 정책의 시행 시기가 뒤로 밀린 것도 문제지만 아동수당의 경우 보편적 지급 원칙이 깨지고 상위 10%를 수혜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

2018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편입생모집

학 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 학 과	18
	국제한국어교원학과	1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2
사범	유아교육과	2
예능	음 악 학 과	5
	실용음악학과	4

※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강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8. 1.6(토) ~ 1.9(화)
• 전 형 일 : 2018. 1. 16(화)

편 입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 학과	모 집 인 원	
		정원내	정 원 외
		일반편입 (3학년)	학사편입 (3학년)
인문	신 학 과	○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	
사범	유아교육과	○	○
예능	음 악 학 과	○	
	실용음악학과	○	

※ 음악학과 전공 ▶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 실용음악학과 전공 ▶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8. 1.8(월) ~ 17(수)
• 전형일 : 2018. 1. 23(화)

신학대학원 편입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 학년	모집 인원	지원자격
2학년	○명 (주·야)	3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
3학년	○명 (주·야)	6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8. 1.8(월) ~ 1.17(수)
※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전 형 일 : 2018. 1. 23(화) 오후 2시 30분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 학교**로 오십시오!!

대 학 원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전형일정

① 원서접수 : 2018. 1. 26(금) ~ 2. 2(금)

② 전 형 일

※모집학과 및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대 학 원	과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전 형 일 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2018. 2. 6(화) 오후 2:30
	박사	유아교육학과(D.Ed.)	○	2018. 2. 6(화) 오후 2:40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과(Th.M.)	○○	2018. 2. 6(화) 오전 9:40
		유아교육학과(M.Ed.)	○	
상담치료대학원		상담심리치료학과(M.A.)	○	2018. 2. 6(화) 오후 2:40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	
		평생교육학과(M.Ed.)	○	
국제대학원		한국어교육학과(M.Ed.)	○○	
		음악대학원	음악학과(M.A.)	
		실용음악학과(M.A.)	○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